

성서 번역에 대한 언어학의 공헌: 어제와 오늘- 1부

로널드 로스*

장동수 번역**

1. 서론

언어학으로 알려진 인간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번역자들, 특별히 성경 번역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훈련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과거에는 이러한 번역자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대상 언어가 자국어가 아니었고, 보통은 번역 작업의 초기부터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외국 선교사들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으레 기술적이며 구조적인 언어학 수업을 받고 자료 모으는 방법을 익히는데 여러 해를 보냈고, 또 몇 해를 그 지역에 더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분석해야만 했다.

그 지역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음운과 문법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휘와 단순한 어구들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종종 그들은 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 언어의 음운론, 형태론, 그리고 구문론을 저술하여 출판하기도 할 것인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른 언어학자들이 덕을 보게 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번역 작업들에서, 비록 보통은 “언어 조력자들”로 불리는 원어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어민들은 신중한 어떤 훈련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조력자들의 공헌이란 자국민의 직감에 근거한 정보 제공으로 제한되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번역들이 선교사 번역자들이 아니라 자국어를 말하는 번역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수년 동안 이루어지던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 번역을 위한 언어학 연구의 유용성이 아직 살아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외국 언어학자/번역자들이 대상 언어의 어휘가 풍부한 사전을 준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어의 음운론, 형태론, 그리고 구문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제공되던 유형의 언어학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훈련은 점점 덜 필요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어학은 여전히 번역자들이 대상 언어의 원어미든 아니든 간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본인은 언어학의 어떤 하위 분야들은 덜 사용된 상태라는 것도 논의할 것이다.

언어학자들마다 언어를 상이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언어를 정의하고 어떤 종류의 언어학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가의 전제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는 그들 연구의 본질, 그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도달하게 될 결론을 결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나는 까닭은 언어학이 아주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번역과 연관된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주로 발전된 분야들을 조사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하위 분야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본인의 특별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허락하는 한 쪽을 넓혀보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언어학의 형식 이론들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들이 번역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헌이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형식 이론의 연구들은 합법적인 언어학적 탐구라고 여겨지는 것을 중심으로 아주 단단한 집단을 형성한다. 그것들은 주로 문장 문법에 관심을 두고, 언어 유용을 도외시한 언어 능력에 집중하며, 문법의 한 요소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문맥의 효과는 무시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본문의 번역을 다루면서 언어학의 도움을 찾는 이들에게 그렇게 수확이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변형생성 언어학이 이러한 면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다.¹⁾

다음 내용에서, 본인은 언어학적인 보편성과 언어학적인 상대성 간의 차이들과 이것들이 왜 번역에 연관성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번역 이론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들을 논의하고 나서, 그것이 왜 그러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두 개의 예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보편성 대 상대성

1) 노암 촘스키는, 그가 행한 마나구아 강의(Managua Lectures)에서 질문을 받고, 번역과 언어 교습 같은 실제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언어학은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그는 변형 생성 언어학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형식 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러한 그의 언어학에 대한 좁은 견해에 대한 예외는 로버트 반 바린(Robert Van Valin)에 의하여 발전된 역할과 지시(role and reference)의 문법일 것이다.

오늘날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사안 중에 하나가 **보편성과 상대성**의 문제이다. 보편성의 전제는 모든 언어의 심층구조는 아주 많이 흡사한데, 말하자면 이는 동일한 원형에서 갈려 나왔다는 의미이다. 이 접근방식은 언어들의 일반적인 유사성을 설명해주고 그 상이점들은 단지 언어 학습자가 어느 특정한 모국어 습득할 때 이끌어내야 하는 그 언어의 특별한 요소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해주는 보편적 원리들을 긍정적으로 가정한다. 이 견해에서는 언어 구조가 주로 유전적으로 습득된다고 보고 또한 모든 언어는 보편적인 의미론적 구조와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한다.²⁾ 즉 한 언어에서 말하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언어에서 말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관하여, 촘스키는 “어휘 습득은 어떤 경험보다도 우선하는 풍부하고 변하지 않는 개념 체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가설에 대항할 만한 분명한 대안적 견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론자들은, 언어들이 보편론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며, 언어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위 세상에 대한 전제들을 문법적으로나 사전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더 강하게 말한다면, 이 견해는 언어가 그것을 구사하는 이들이 그 실체의 어떤 면들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측면들은 숨김으로써 한 언어 공동체의 개념 체계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아스(Boas), 사피르(Sapir), 그리고 호르프(Whorf)가³⁾ 20세기 첫 50년 동안 믿고 가르쳤던 내용이며, 개념들이 주로 결정된 언어라는 생각은 19세기 초의 훔볼트(Humboldt)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년 사이에 보아스, 사피르, 그리고 호르프가 죽고 변형생성 문법이론이 태동하면서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은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다. 촘스키가 언어학을 “경성”(hard) 과학으로 바꾸기에 열중하였는데, 과학은 특화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일반화 하는 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보편적 문법(universal grammar, UG)**을 향한 추구였고, 특별히 인식의 단계에서 어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무책임한 과학으로 여겨졌다.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은 상류사회에서는 거의 언급될 수 없었다.

최근에,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은 복귀 되어 인지 언어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⁴⁾ 「언어」(Language)지 최근호에서,⁵⁾ 주요 논문 중의 하나와 서평 두 개가 언

2) 예를 들면 케인(Kayne)이 언명한 세상의 모든 S[vp VO]구조 언어라는 확신이다(Van Valin and La Polla, 1997)에서 인용함.

3)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의 토대는 보아스에 의하여 놓였지만, 호르프와 사피르에 의하여 더 발전되었다. 이 이론의 가장 강한 견해를 표방한 이는 호르프였고 그것을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으로 불렀다(Lucy, 1992).

4) 팔머(Palmer, 1996)는 제안하기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과 언어 민족학만 제외한다면, 인

어학적 상대성 이론을 다루어야만 했고, 스티븐 레빈슨(Steven Levinson), 존 겐펠츠(John Gumperz), 존 래시(John Lacy), 에리놀 옥스(Elinor Ochs), 윌리엄 폴레이(William Foley), 댄 슬로빈(Dan Slobin), 그리고 조지 라코프(George Lakoff) 등과 같은 언어학자들이 이 이론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언어학적 상대성 이론은 굳이 사피르-호르프 가설의 복사판일 필요는 없다. 이제 는 경험적인 연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언어가 언어 공동체가 자신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측면들을 결정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이들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든지, 언어는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보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동일하게 흥미로운 상이점을 반영할 만큼의 흥미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상이하다는 증거들의 뭉치가 쌓여가고 있다.⁶⁾

언어학적 보편성 대 언어학적 상대성 논쟁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채택하는 입장이 중국에는 번역 이론에서의 결정적인 사안들에 관한 그 사람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공동의 의미론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보다, 언어는 문화와 세계관을 다르게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실제적 학습법의 면에서 보면 번역 이론에는 더 생산적으로 보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언어의 다양성이 전적으로 무제한적이라든지 혹은 수많은 언어학적 보편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은 아니다.

2.1. 은유

이 접근방식의 대중적인 예는 라코프와 존슨의 『우리가 의지하여 살고 있는 은유』(*Metaphors We Live By*)라는 책인데,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은유가 문학적 예술 형식에 사용되는 어떤 수사학적인 장치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익숙한 중요한 개념들은 은유적으로 개념화한다. 이 저자들은 유리된 은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유의 전체 망 혹은 은유 주제(*metaphor themes*)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서구 문명권에서 아주 흔한 시간 은 돈이다(*time is money*)와 같은 은유의 수많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언어학을 언어학에 대한 보아스적 연구방법론의 ‘현대적 부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두란티(Duranti)(1997)와 폴리(Foley, 1997)를 보라.

5) 1998, 9월, 74권, 3호.

6) 언어학적 상대성의 상이한 관점들과 접근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선 라코프(Lakoff) (1987: 305이하)를 보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잃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고, 빌린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논쟁은 전쟁이다(argument is war)는 은유이다. 우리가 논쟁에 끼어들 때, 우리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거나, 우리는 어떤 이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지고, 우리가 퇴각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논증을 패배시키거나 쏘아 떨어뜨린다. 라코프와 존슨에게 있어서 은유의 정수는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 한 사물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돈이다 혹은 논쟁은 전쟁이다처럼 은유 주제는, 달리한다면 예외적이거나 아주 특이한 사건의 낱말목록으로 보일, 대량의 사전적 낱말 배치에 응집력을 부여하는 틀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은유 주제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들이 자신들의 주위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어떤 은유도 그 경험적인 근거와 독립적으로 이해되거나 심지어 적절히 표현될 수 없다고 우리는 느낀다.”

은유 주제들이 자의적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것이 결코 상이한 문화들이 동일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이한 문화에 속한 이들은 그들 주위의 세계를 확실히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은유 주제들을 만들어낸다. 라코프와 존슨은 우리들에게 논쟁이 춤으로 보이는 문화를 생각하라고 요청한다. 그럴 경우, 참여자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균형 있고 미적으로 기쁨을 주는” 공연을 해야만 하는 공연자들로 보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논쟁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다른 어떤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번역자들은 항상 한 문화의 은유들이 종종 다른 문화에서는 번역을 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은유와 그림 언어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항상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훈련 연수회의 일부가 되었다. 라코프와 존슨에게서 흥미로운 것은 은유의 침투성과 은유 주제들의 존재인데, 이것들이 번역 상에 있어서는 분리된 은유들보다 더 도전적이다. 남아 있는 한 가지 의문은 은유가 모든 언어의 직물 속으로 아주 풀 수 없을 만큼 짜여 있는가이다. 마야의 어떤 언어들은 그림 언어와 견주어보면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주인들처럼 보인다.

2.2. 공간 개념

언어의 상대성이나 인지 언어학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언어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 분야는 공간 개념이다(예를 들면, Foley, 1997; Levinson, 1996; Pederson et al, 1998). 명백히 모든 언어는, 어떤 말로 표현되든지 간에(북, 동, 해가 떠오르

는 곳, 산을 향하여, 강으로 내려가는, 바다를 향하여) 기본적인 방향에 기초한, 절대적인 공간 개념을 지니고 있다. 많은 언어들은, 결코 모든 언어가 아니고, 사람, 흔히 화자의 몸을 기준으로 한 위치에 기초한 상대적인 공간 개념도 함유하고 있다. 그런 언어들에서 위치들은 종종 화자의 뒤 혹은 앞 혹은 화자의 오른쪽 혹은 왼쪽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기준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식탁 뒤에, 상수리나무 오른 쪽으로).

상대적인 공간 개념이 부족한 언어에서, 모든 위치들은 기본적인 방향들로 표현된다. 물론 이것은 그러한 언어의 화자들이 모든 순간에 거의 완벽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페더슨(Pederson) 등이, 화자의 인식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이 그의 언어적 준거 틀과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련의 비언어적인 실험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저자들은, 공간 개념의 관점에서 유형론적으로 상이하게 만드는 언어의 화자들이 공간 인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이하게 만드는가를 시험해 보기 원했다. 공간 개념은 언어학적 상대성을 시험해 보는 중요한 근거인데, 이는 공간은 아마도 모든 인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은 문화와 환경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 피더슨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언어와 개념화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실험에서 발견된 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학적인 부호의 사용은 개인이 비언어학적인 목적으로 공간 구분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과 확실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언어학적 상대성은 인간 경험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 메카니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언어와 사고 간의 이와 유사한 연관성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명한 것은,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간의 개념적인 구법(句法)이 서로 맞지 않아도, 이러한 상호 연관성들은 번역 이론에도 암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서 언어들은 절대적인 동시에 상대적인 공간 개념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성서 본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공간 개념만 지니고 있는 첼탈어(Tzeltal)(멕시코 마야어) 같은 언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많은 문단을 뽑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에스겔이 모두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날개가 넷 달린 생물에 대한 그의 환상을 묘사한 곳을 예로 들어보자.

각 생물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얼굴이 있었다: 앞면은 사람 얼굴, 오른편은 사자 얼굴; 왼편은 소 얼굴; 뒷면은 독수리 얼굴이었다(TEV).

상대적인 공간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용어들을 사용한다: 소금을 나에게 건네주세요, 저기, 바로 쌀 대접 남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북쪽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동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을, 서쪽으로는 소의 얼굴을, (아마도) 남쪽으로는 독수리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의 본문은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한 생물이 모두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네 얼굴을 지니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심지어 어떤 이는 꿈을 지칭하는 기본적인 방향들의 관점에서 말할 때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질문하기도 한다. 아마도 최선의 선택은 덜 번역하여 “각각 그 머리에 네 얼굴을 달고 있었다. 한 쪽에는 사람의 얼굴, 다른 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 지니고 있었다.” 정도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 본문이 머리에 붙어 있는 얼굴들의 구성에 대하여 실제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덜 번역하기이다.

번역의 문제들을 꼬집어서 언급하면서, 라코프는 본질적으로 말하기를, 두 언어 간의 번역의 가능성은 공통의 개념 체계의 존재 여부(분해 단위성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한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번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잘 안 맞는 지점들에서는 번역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플레이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번역은 이질적인 체계의 범주들에서 우리 체계의 범주들로의 이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번역은 이질적인 체계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만약 완전히 서로 맞지 않는다면, 부분 번역조차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개념적 체계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번역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적어도 어떤 최소한의 공통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 사이의 드넓은 협곡으로 우리를 엮어매서는 안 된다. 퀴네(Quine)은 언어는 체계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단어들의 뜻을 다른 체계에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단어들이 속해 있는 더 큰 개념적 체계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는 체계들을 전체적으로 정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에 개념적 체계를 잘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번역자들에게 순전한 근원적 문제가 되고 이를 어떤 번역 이론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을 확인하고 다루는 전략들이 모든 세계성서공회 연합회(UBS) 훈련 워크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유형론

언어학적 유형론은 언어들을 구조적 공통성을 기초로 유형별로 나누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유형론은 언어의 모든 측면에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담화의 수준까지 관심을 둔다.

3.1. 구성 요소 순서 유형론

가장 전통적인 관심 중의 하나는 절이나 구의 단계에서 구성 요소들의 순서였다. 절의 단계에서, 세계 언어의 절대적인 다수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본적인 (즉, 표시가 없는) 구성 요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동사 주어 목적어(VSO), 주어 동사 목적어(SVO), 혹은 주어 목적어 동사(SOV). 예를 들면, 이것은 VSO 언어라고 해서 꼭 이 순서로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그 언어에서 표시가 나지 않고, 가장 중립적이며, 예상할 수 있는 어순이라는 것을 의미이며, 화자들이 이 순서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청자에게 화용론적인 함의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영어는 이제 SVO 언어이나, 확실히 다른 표시 나는 순서들이 가능하고 이 순서들은 다음 예시에서 보듯이 늘 일어난다: 1a-b.

[1] a. I like tofu (SVO)

b. Tofu I like (OSV)

이 두 문장은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나, 화용론적으로는 구별되고 서로 다른 맥락적 환경에서 사용될 것이다. 스페인어와 같은 SVO 언어에서 가리푸나(Garifuna)어(온두라스의 아라와어) 같은 VSO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번역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유형론적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가리푸나어는 주어를 특별히 두드러지게 할 화용론적인 필요가 있는 때는 SVO의 순서를 허락한다. 하지만, 꾸밈없는 가리푸나 번역자가 스페인어의 표시가 없는 SVO 순서를 가리푸나어의 표시가 있는 SVO 순서로 재생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심각한 결과를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다. 번역자가 번역할 때, 이러한 잘못된 번역 중의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아주 나쁘게 들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담화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은 참담할 것이며, 번역자가 자신의 작업을 재검토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방도는 몰라도 자신에게 이상하게 들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천 본문과 수용 본문 간의 가능한 높은 수준의 화용론적 유사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워크숍은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 모두의 표시가 없는 구성 요소 순서와 표시가 있는 순서가 채택될 때 각각에서 발생하는 화용론적 변화의 종류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혼란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시가 없는 순서들을 표시가 없는 순서로 그리고 표시가 있는 순서를 표시가 있는 순서로 번역하면서 유사한 화용론적 효과를 할 때는 주의해야만 한다.

구성 요소 순서는 그 자체 때문에만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언어의 다른 측면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안이다.⁷⁾ 예를 들면, 한 언어가 VO 순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히 그 언어에는 전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한국어와 같은 OV 언어들에는 후치사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만약에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가 유형론적으로 상이하다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점에서 소수의 번역자들만이 원천 언어에 후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언어의 명사 끝에 전치사를 붙이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순이 예보해 주는 다른 유형론적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신호로 알려주는 상이점들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계적이지도 않으며 첨가어(adpositions?)로 다루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 어순 역시 명사와 수식어의 표시가 있는 순서와 표시가 없는 순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표시가 없는 순서를 표시가 있는 순서로 혹은 그 반대로 번역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최근 언어학 이론에서, **주요부(head)**라는 용어는 한 구성 요소의 문장론적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지칭한다. 그래서 명사구의 주요부는 명사이고, 동사구의 주요부는 동사이다. 테오 베네만(Theo Vennemann)(콤리[Comrie], 1989에 이용됨)은, VO 언어에 있어서 **주요부-처음(head-initial)**(즉, 구에서 주요부가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고 OV 언어에서는 **주요부-나중(head-final)**(즉, 구에서 주요부가 마지막 요소가 되는 것)이라는, 보편적 경향을 감지해냈다.⁸⁾

7) 유형론자들 가운데서 다른 언어학적 요소에 근거한 어떤 특정한 언어학적 요소가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예견은 내포적인 보편 원리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언어학적 보편 원리는 처음에 요셉 그린버그(Joseph Greenberg)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한 언어가 세 종류의 수(단수, 복수, 쌍수·역자 주)를 지니고 있다면, 그 언어에는 쌍수가 존재한다. 만약 그 언어가 쌍수를 지니고 있다면, 또한 복수도 존재한다.

파푸아뉴기니아(Papua-New Guinea) 언어들의 전문가인 존 알 로버츠(John R. Roberts, 1997)는 이러한 유형론이 번역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서 그리스어와 아멜레어(Amele)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스어는 VSO라서,⁹⁾ 주요부-처음(head-initial) 언어이다. 아멜레어는 SOV라서 주요부-나중(head-final) 언어이다. 주요부-처음/주요부-나중의 대조는 심원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이 두 유형의 언어가 표현하는 어순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관계를 예견해준다.

VSO (그리스어)	SOV (아멜레어)
결과-이유(RESET- <i>reason</i>)	이유-결과(<i>reason-RESULT</i>)
결과-수단(RESET- <i>means</i>)	수단-결과(<i>means-RESULT</i>)
수단-목적(MEANS- <i>purpose</i>)	목적-수단(<i>purpose-MEANS</i>)
수단-소극적 목적(MEANS- <i>neg purpose</i>)	소극적 목적-수단(<i>neg purpose-MEANS</i>)

[2] a. 그리스어: 군중은 ... 어리둥절하였다(결과) 왜냐하면(*hoti*)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기 때문이다(이유) (행 2:6)

b. 아멜레어: 그들은 모두 그들이 모두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이유), 그래서(*nu*) 그들은 모두 어리둥절하였다.

[3] a. 그리스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눕혀 놓고(수단),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hina*)(목적).(행 5:15)

b. 아멜레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라서(목적), 그래서(*nu*)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자리에 눕혀 놓았다(수단).

덜 자세할지라도, 라슨은 아마존 강 유역의 이름 없는 언어들을 포함한 상부 아사로어(Upper Asaro)와 영어 사이에서 (자료를 Deibler and Taylor, 1977에서

8) “주요부-처음”(head-initial)과 “주요부-나중”(head-final)이라는 용어들은 베네만(Vennemann)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각각 “피작용어-작용어 언어”(operand-operator languages)와 “작용어-피작용어”(operator-operand languages)라는 좀더 전문적인 용어를 더 좋아하였다.
 9) 고대 그리스어의 VSO 상태는 로버츠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린버그(Greenberg, 1966)는 또한 그것을 프리버그(Friberg, 1982)와 레빈손(Levinsohn, 근간)이 하듯이 그렇게 분류하였다. 그린버그 자신은, 나는 그가 그렇다고 추정하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언급하고 있다고는 명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어는 폭넓게 SVO언어라고 여겨지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예를 들면, Watters, 2000: 131) 그리스어에서 동사와 목적어 순서는 구문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담화 화용론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믿는다.

인용하면서) 흡사한 절-순서 불일치들을 예증하였다. 스테펜 레빈존(Stephen Levinsohn)은 (로버츠와 개인적인 담화를 통하여) 잉가어(Inga)를 그러한 하나의 아마존 언어로 분류하였다.

수년전에 나는 브리브리어(Bribri)(코스타리카의 칩찬어[Chibchan]) 또한 아멜레어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SOV 언어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원인(이유)이 먼저 나오고 효과(결과)가 나중에 나와야만 한다. 로버츠(Roberts)가 이것이 언어학적인 보편 원칙이 될 수도 있음을 제안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아와 다른 지역의 OV 언어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자신의 동료들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자들을 발견하였다. 한 절 한 절 번역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순박한 번역자는 독창성 없이 종종 더 고급인 원천 언어의 구조를 따라 갈 수 있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떠벌리는 번역으로 마무리해서, 이를 이해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과정상의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로버츠는 그의 논문에서, 화자들이 논쟁을 구성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형론적인 특성이 그리스어와 아멜레어 간의 다른 많은 차이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서는 접근 방식이 연역적이다: 논지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지지하는 논증이 뒤따라온다. 아멜레어에서는 그 순서가 귀납적이다: 지지하는 논증들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논지가 뒤따라온다. 번역을 검토할 때, 아멜레어 독해자들은 논지를 만나면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지하는 논증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증들은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번역자들이 원천 본문의 구조를 따라 논증들을 논지 다음에 배치하여서 그 논쟁을 꿰뚫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독해자들이 그 본문의 논쟁을 파악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당량의 논쟁 부분이 들어 있는 서신서의 경우에 특별히 성가신 일이다. 한국어는 SOV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논쟁 구조가 아멜레어의 그것과 유사한지 알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2. 문법적 유형론

언어들 간에 문법적으로 흥미롭게 상이한 점들 중의 하나는 그 언어들 이 자체의 문법적 관련성을 구성하는 방식 혹은 그것들이 문법적인 관련성이라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좀더 일반적인 유형 두 가지는 **대격(accusative)** 언어와 **능동격(ergative)** 언어이다. 대격 언어들은, 예를 들면 둘 다 주격으로 놓음으로써, 타동사 주어와 자동사 주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다른 한 편으로, 직접 목적어들은 전형적으로 대격으로 나온다. 하지만, 능동격 언어들은, 타동사

주어는 능동격과 함께 사용되게 하는 반면, 둘 다 절대적으로 놓음으로써 자동사 주어와 직접목적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¹⁰⁾

언어들은 서로 다르게 대격 언어이거나 능동격 언어로 나뉜다. 예를 들면, 핵심 논증들이 능동격과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언어는 형태론적으로 능동격이다. 만약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동사의 한쪽 편에 나타나고 목적어를 동반하는 주어가 다른 편에 나타난다면, 어순의 관점에서 그것은 능동격 언어이다. 만약에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주어 혹은 직접목적어가 구문론적인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목적어를 동반하는 주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문론적인 능동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문론적인 중심축은, 대등절관계에서는 생략되는 것과 같이, 구문론적인 원칙을 따라 상호 작용하는 명사들이다.

영어처럼 구문론적으로 대격 언어들이, 두 대등절의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첫 절의 주어와 동일한 인물이거나 사물일 경우 보통은 생략된다.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두 명사가 모두 주어이고(목적어를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주어이든) 둘 다 동일한 지시어를 두고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3] a. The man hit the dog. The man ran off. (그 남자는 개를 때렸다. 그 남자는 도망갔다.)

b. The man hit the dog and [the man] ran off. (그 남자는 개를 때리고 [그 남자가] 도망갔다.)

문장 [2b]가 많은 구문론적으로 능동격 언어에서는 오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은 대등관계 절에서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두 주어, 두 직접 목적어 혹은 각각에서 하나 사이에서만 생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장 [3b]는 정상적이거나, 거기에는 번역자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4] a. The man hit the dog. The dog ran off. (그 남자가 개를 때렸다. 그 개가 도망갔다.)

b. The man hit the dog and [the dog] ran off. (그 남자는 개를 때리자

10) 나는 간결성과 단순성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적절하게 능동격 언어를 대격 언어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능동격 언어에서 주어군들은 능동격과 절대적으로 같힌다. 그래서 능동격 언어들을 지칭할 때 **주어**라는 것이 유용한 개념인가 아닌가가 의문시된다. 이 사실이 수많은 기능적 유형론자들과 여타 다른 이들을 움직여서 디슨(Dixon)의 좀 더 중성적인 용어이며 한 구(句)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명사를 의미하는 **구문론적 중심축(syntactic pivot)**이라는 말을 선호하게 되었다(Dixon [1994], Palmer [1994], 그리고 Van Valin and LaPolla [1997]을 보라.).

[그 개가] 도망갔다.)

문장 [3b]와 [4b]는 음성학적으로 동일하지만, 분명히 의미는 상이하다. 최근에, 나는 유피악(Iupiak)어 화자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유피악 여인이 자국어인 유피악어와 영어 신약성서 사이에서 자신이 알아낸 불일치를 제기하였다. 그 불일치는 한 영어 문장을 [2b]처럼 읽고는 그것을 [3b]처럼 해석한 에스키모 번역자 때문이었다. 그 반에서 영어가 아주 유창한 다른 학생이 반복적으로 그 영어 번역을 읽고 유피악어로 기록된 것처럼 그 문장을 끈덕지게 잘못 해석하였다.¹¹⁾

상상컨대 두 번째 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대등절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번역 오류가 원래의 유피악어 팀에, 구문론적인 능동격 언어와 구문론적인 대격 언어 사이의 차이점이 유형론적으로 시사하는 무엇인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끼어들어 와서, 번역자들과 자문단이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유형론적 차이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문장 [2b]를 유피악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의 문법적인 지위를 바꾸기 위하여 반(反)수동태(anti-passive voice)의 사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원천 언어의 문장을 오해하고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용 언어에서 문법적인 관계들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보통 방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이웃하는 방언들 사이에서도 유형론적으로 중요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과테말라(Guatemala)에서 구사되는 마야(Mayan)어인 추이(Chuj)어의 ‘방언 A’의 번역자들은 저본으로 스페인어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또한 이웃 방언 B로 된 기존의 구약 번역본을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방언 B에는 단지 두 종류의 수, 즉 단수와 복수가 있는 반면, 방언 A에는 세 종류의 수, 즉 단수, 쌍수, 그리고 복수가 있었다. 방언 B의 복수는 기존의 쌍수에서 유래되었는데, 마치 방언 A의 쌍수와 같아 보였다. 번역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방언 B의 쌍수들이 복수인줄로 믿고 그렇게 번역하였다. 그래서 방언 B로 된 기존의 번역에 복수로 되어 있는 곳마다, 방언 A에서 그들은 복수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적인 불일치는 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본문에 수천 번 나타나는 이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컴퓨터 작업으로는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수

11) 톰 페인(Tom Payne)이 (사적인 대화로) 나에게 한 유피악 에스키모가 그에게 **툼이 벌레를 먹고 병이 났다**(Tom ate the bug and got sick)라는 유피악 문장에 대하여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은 **툼이 벌레를 먹었고 그 벌레가 병이 났다**(Tom ate the bug and the bug got sick)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작업으로 해야만 되었고, 그 결과 그 프로젝트는 수개월이나 지체되었다.

가리푸나(Garifuna)어는 소유를 나타내는 방식이 어형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소유 표시가 **소유자(possessor)**가 아니라 **소유 행위(possessum)**로 표시된다.¹²⁾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명사는, 예를 들면 나무나 동물, 소유표시를 지닐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의 지시대상물이 결코 소유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리푸나어 문법은 소유격 형태론을 취하는 단어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동물의 경우에, 그들은 소유격 형태론을 취할 수 있는 어휘인 **일그니(ilgni)**라는 단어(대략 ‘애완’이라는 뜻)의 어떤 형태를 사용해야만 한다. 가리푸나어로 사람들은 **나의 개**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애완 개**라고 말한다. 최근에 요한복음을 작업 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문단에 이르게 되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러나 물론, 양에 대한 가리푸나어 단어는 소유격 표시를 취하지 못한다. **양** 앞에 **일그니**라는 단어의 소유격 형태를 삽입하는 것은 번역자들 사이에서 귀에 거슬리는 폭소를 유발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양**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기 때문이다.

많은 언어가, 아마도 거의 다, 능동태와 수동태 간의 태 변환체제를 지니고 있다. 보통 능동태는 표시가 안 된 정상적인 형태이다. 능동태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또한 행동의 행위자(**Agent**)이고, 그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자(**Patient**)이다. 주어는 또한 보통 그 문장의 주제이거나 말하여지고 있는 화제이다.

[5] The policeman arrested the thief. (경찰이 도둑을 체포하였다.)
 행위자(**Agent**) 수동자(**Patient**)

수동태에서, 수동자(**Patient**)는 그 문장의 주어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행위자(**Agent**)는 사격(斜格)이나 주변적 참여자의 위치로 강등되거나(보통 전치사 **by**로 시작되는 전치사구의 형태로) 아예 삭제된다. 이는 한 문장의 능동형태는 보통 타동사 문장이다(주어와 목적어를 지닌 문장이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수동태는 그 문장의 주어로서 기능하는 수동자를 지니는 것이 덜 일반화된 일이기 때문에 표시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동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수동태가 사용된다.

[6] The thief was arrested by the policeman. (도둑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수동자(**Patient**) 행위자(**Agent**)

12) 가리푸나(Garifuna)어는 선두에 선 언어이다.

예 [5와 [6]에서 행위자와 수동태 주어는 모두 사람이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수동태 주어는 사물일 수도 있다.

- [7] a. John ate the apple. (요한이 사과를 먹었다.)
- b. The apple was eaten by John.(사과가 요한에 의하여 먹혔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사람들이 수동태를 사용하기 원할 때, 수동태 주어(즉 Patient)는 생물이어야만 한다(사람 혹은 동물).¹³⁾ 그래서 한국어에서 다음 문장 [8]과 같이 말하는 것이 문법적이다:

- [8] John-은 그 사과-를 먹-었다
- John-top the apple-acc eat-past
- John-주제 the apple-대격 eat-과거
- ‘John ate the apple’

그러나 다음 문장 [9]와 같이 수동태로 말하면, 사과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법적일 것이다:

- [9] *그-사과-는 John-에게 먹-히-었다.
- the apple-top John-dat eat-pass-past
- ‘The apple was eaten by John’

그리스어에서 수동태가 빈번히 사용되고 수동태 주어는 굳이 생물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수동태 주어가 생물이 아닐 때마다, 수동태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른 구조가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아마도 이 작업은 단순히 무생물 수동태 주어를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표시해주는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동태로부터 발생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번역상의 문제는 중국어, 일본어, 타이어, 캄보디아어, 라오어(Lao) 등과 같은 여러 아시아 언어들에서 수동태 주어가 불행한 사건의 희생물처럼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의사에 의하여 나음을 입었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베드로가 차에 치었다**라는 문장을 듣기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수동태 주어가 특별히 어떤 불길한 사건을 겪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3:21이 좋은 예이다.

13) 진술과 예들은 팔머(Palmer, 1994:30)에 의하여 인용된 Song (1987: 74-6)에서 나왔다.

[10] 백성이 모두 세(침)례를 받을 때,¹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²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³ (NIV)

이 구절에는 세 개 이상의 수동태 구조가 있는데, 모두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고 어느 것도 수동태 주어(사람들, 예수, 하늘)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 언어 중의 하나에서 수동태 구조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세(침)례가 두려운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번역자는 수동자-참여자들이 주어로 나타나도록 허용해주는 다른 어떤 표시가 있는 문장론적 구조를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종종 상이한 문법이 상이한 정보를 전달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다른 언어의 문법에서 훨씬 더 재현되기 힘들다. 카사드와 랭개커(Casad and Langacker)는(1985, Hudson 1996: 83-84에서 인용됨) 코라(Cora)어(멕시코의 우토 아즈텍어(Uto-Aztecan))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두 가지 접사(affix)의 경우를 연구하였다. 이 접사들의 용례는 너무 복잡하여서 여기서 기술할 수 없는데, 다만 이것 혹은 저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화자의 시선과 관련된 목적어의 위치에 달려 있다. 이 접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진술문을 읽고 있노라면, 코라(Cora) 사람들은 야외에서 살아가지만,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독특한 개념화 과정을 접사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로 하여금 허드슨과 함께 “우리가 접사와 같은 문법적인 구조들에 집중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표현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미들에서 언어 간의 극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몰아세운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되어야만 하는 여러 종류의 의미들에서도 극적인 차이점들이 있다고 첨언할 수 있다.

<주요어>

유형론, 보편성, 번역, 문법, 상대성 이론

<Abstract>

The Contribution of Linguistics to Bible Translation Yesterday and Today: Part 1

Dr. Ronald Ross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e traditional role that linguistics has played in Bible translation is changing and there are two reasons. The first one is that missionaries are doing less and less translation and mother-tongue translators are doing more and more. So in most cases missionaries no longer need to “master” the target language before beginning the translation and this means they no longer need to spend years doing phonologic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analysis.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field of linguistics itself has been expanding enormously. One of the changes has been the reemergence of linguistic relativity, as opposed to the universalism that dominated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Languages once again can be viewed as a reflection of the cultures they serve and the possibility of comparing them typologically gives us a vastly clearer idea of how they do and do not differ. Translators need to be made aware of typolog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rce and target languages. This paper looks specifically at constituent order typology and grammatical typology, examines some of the implicational universal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m and takes a look at how these can be useful to translators.